향 문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특별기획전
'향도구 특별전 청공향사'
5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향완 병향로 등 소장 향도구 전시
사찰의 향 문화 전승과 보존 조명
향 문화 오랜 인연 보고이자 성지
부대행사 특강 · 시연 행사도 진행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5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특별기획전 '향도구 특별전 청공향사(淸供香事)'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표충사 청동은입사향완(1777, 국보)'을 비롯해 통도사 소장품, 덕문 스님(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광우 스님(마산 정법사 주지), 원행 스님(광제사 주지)이 30여 년 동안 수집한 한 · 중 · 일 향 도구 관련 유물을 선보인다.

전시되는 유물은 표충사가 소장한 고려시대 향완(국보)과 조선시대 향완(보물) 2점을 비롯하여 위진남북조 때부터 당송시대까지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병향로, 그리고 향시반이 전시되는데, 병향로는 이운의식을 할 때 주로 활용했던 향로로 긴 손잡이가 있어 장시간 이운의식을 봉행하기에 편리하게 제작됐다. 향시반은 선원에서 입선 시간을 재기 위해 사용했던 향시계로 향 소임자를 두어 향 틀에 향 가루를 채워 입선 때 불을 붙이고 향 연기가 그치면 방선죽비를 치는 형식으로 활용했다. 이 밖에도 선원에서 안거를 시작할 때 했던 고향(告香)의식 등의 다양한 의식을 제정해서 여법한 수행과 교화에 이를 활용했다. 이처럼 향 문화는 수행과 교화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향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전시가 전하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번 전시는 통도사에 남아있는 향 문화 관련 문화유산을 살펴봄으로써 옛 향 문화를 조명하고 복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래 전부터 향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을 해온 통도사와 인연이 있는 스님들의 연구 결과를 선보이게 된 점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통도사가 고대로부터 찬란하게 꽃피웠던 향 문화의 보고이자 성지이기 때문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이러한 유산을 물려받은 인연으로 향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이를 복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청동박산향로


표충사 청동은입사향완(1777, 국보)

통도사 곳곳에는 향과 관련된 유물과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다. 〈통도사사적약록〉, 〈사지사방산천비보사〉에는 통도사 안에 있었던 일곱 개의 사찰인 칠방의 특징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칠방 가운데 향 문화와 관련이 깊은 곳이 곡성방인데, 기록에는 "더욱이 곡성방이라고 한 곳은 자장율사께서 처음 통도사를 창건하실 적에 암자를 짓고 이곳에서 왕래하며 통도사 창건을 감독했으며, 후에 율사의 제자 중에 곡성이 있었는데 절의 이름을 고쳐서 곡성사라고 했다. 곡성 스님이 주석하여 임종에 이르렀는데 늘 선정에 들어서 좌선을 할 때면 오색구름이 절 위를 덮고, 다섯 가지 향기가 골짜기에 가득해서 후에 운곡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통도사 계맥이 이루어지고, 불전의식을 담당했던 스님을 화향제자(火香弟子)라 했는데 자장율사의 화향제자인 조일율사가 통도사의 문수 계맥을 전수했고 지금도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통도사 금강계단을 축조하고 21년이 지난 뒤 저술된 당나라 도선의 〈계단도경〉에는 석종형 부도의 구조 및 형식에 오분향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과 석종형 부도의 정면에 향로가 조각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장 및 각종 의식문에 수록된 게송을 통해서도 향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교의 수행과 교화에 향 문화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향로가 제작됐으므로 향완, 병향로, 향사반 등과 같은 다양한 향 도구의 이해와 고향의식 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찰의 향 문화전승과 보존에 대해 살펴보고 수행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중앙괘불전에서 전시와 관련된 특강과 시연 행사도 진행한다. 5월 28일 오후 2시에는 '향으로 전하는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덕문 스님의 특강이 진행되며, 7월 23일 오전 11시에는 '향으로 드러낸 진리의 세계(향 재료와 전향의식)'라는 주제로 원행 스님의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8월 20일 오후 1시에는 '헌향 및 고향의식'이라는 주제로 영산 스님의 시연이 진행된다.

2022 서울국제노인영화제 폐막

대상, 김길수의 '딜레마' 등 수상
코로나 시대 '긍정의 삶' 주제 다수
미술계 콜라보로 11개 트로피 제작


대상작, 김보람의 '자매들의 밤' (한국단편경쟁 청년감독 부문)


대상작, 김길수의 '딜레마' (한국단편경쟁 노인감독)


대상작, 사무엘 페테 · 실뱅 모네의 '껍질' (국제단편경쟁 부문)

지난 5월 19일부터 열렸던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23일 시상식을 끝으로 폐막했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희유)는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단편경쟁 부문 대상 2편 등 수상작과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 3편 중 한국단편경쟁 노인 감독 부문과 청년 감독 부문에는 김길수 감독의 '딜레마'와 김보람 감독의 '자매들의 밤'이 각각 선정됐으며, 국제단편경쟁 부분에는 사무엘 페테(Samuel Patthey), 실뱅 모네(Silvain Monney) 감독의 '껍질(Ecorce)'이 선정됐다.

△김길수 감독의 극영화 '딜레마'는 아들이 홀로 남은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재산 사전 증여를 요구하면 시작된다. 그러나 아버지는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아온 아들이 미덥지 않다. 영화는 효(孝)를 생각하게 하는 부자(父子)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작품으로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보람 감독의 '자매들의 밤'은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다섯 명의 자매들이 첫째 혜정의 집에 모이면서 시작된다. 혜정은 오빠의 칠순을 맞아 해외 여행 선물을 계획하고 막내 정희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한다. 영화는 자매들의 화해와 연대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는 사연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려낸다.

△사무엘 페테 · 실뱅 모네 감독의 '껍질(Ecorce)'은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담백한 이미지로 스케치하면서 다소 단조로울 수 있는 분위기를 다양한 질감의 재료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표현했다. 숨겨진 곳,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양로원의 일상이 펼쳐진다. 연필로 그린 입주인들이 종이 위에서 살아난다. 어떤 이들은 활동적이고, 다른 이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약, 식사, 게임으로 이루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우수상 3편 중 한국단편경쟁 노인 감독 부문과 청년 감독 부문에는 김중선 · 박봉하 · 윤희성 · 이성화 · 이옥자 감독의 '어느 대장장이의 다짐'과 서정미 감독의 '김정임 씨네 막내 손녀'가 각각 선정됐으며, 국제단편경쟁 부문에는 앤 A. 하우그제르드(Ann A. Haugsgjerd) 감독의 '모어 우먼, 모어 크라이(More Woman, More Cry)'가 선정됐다.

△특별상 부문에는 5편이 선정됐다. 심사위원 특별상에 조용서 감독의 '94세 코로나 일기', 시니어 배우상에 강애심 배우(자매들의 밤, 제씨 이야기), 우수 시나리오상에 이하은(제씨 이야기), 시스프렌드상에 류연수(반신불수가족)와 김필자 · 김인열(호동할매, 박말상)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지난 한 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금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한국단편경쟁은 코로나 배경의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 버티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삶을 긍정하는 주제가 눈에 띄었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영화계와 미술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의미와 고유의 개성이 담긴 11개의 트로피를 제작했다.

박재완 기자

제12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12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반야학술상은 시상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교육 및 학술활동이 활발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연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들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 추천(타천) 마감 : 2022년 7월 15일
■ 추천(타천) 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바람.
■ 시상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문의처 :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4731-3471) 우명주 (010-9027-5193)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